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http://www.daegujobo.or.kr



† 오늘의 전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4,5-42 참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이 낯선 남자와 말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과, 더욱이 수상한 과거를 지닌 여자와 종교 선생님이 우물가에 앉아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풍속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말씀을 건네시며,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항상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복자성당 감실과 성인 유해 안치소
사진_홍창익 비오 신부

제1독서 탈출 17,3-7

제2독서 로마 5,1-2,5-8

복음 요한 4,5-42

입당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우물가에서

서정섭 바르톨로메오 신부 | 성 정하상 바오로 본당 주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노사연 씨의 ‘만남’이란 노래 가사인데 복음에서의 주님과 여인의 만남이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분이 여인에게 다가갈 말을 거신 것이 단지 우연이 아니었을 테고, 처음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만남이 대화로 이어지고, 남편을 여섯이나 맞이해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의 웅한 가슴 속이 그분 말씀들로 채워지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조건들이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얽매어놓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듯 기뻐했고 희망에 찼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그녀를 바랐고, 여인 역시 자신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 그 만남을 기다려왔음이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만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의 행복이 없이는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평범한 그 한 사람, 예수께는 그런 사람의 행복이, 그런 평범한 한 사람의 기쁨이나 살아 꿈틀거리는 희망이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규범이나 법이 아니고, 예루살렘이어야 한다거나 그리집 산이랴야 한다는 식의 종교적 주장들도 결국엔 별로 중요치 않다고 하십니다. 과거의 죄도, 피해 가고 싶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엿물려있는 그런 죄악들까지도 어쩌면, 그래서 그분이 보인 관심과 어느새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샘솟는 생명의 기운

을 느끼며, 여자는 이고 갔던 — 자신의 텅 빈 인생 같던 — 빈 항아리를 내려 두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뛰어가 소리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와서 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하면서.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사마리아 여자처럼, 온갖 이유로 이것저것 많이도 붙들고 살지만, 진짜 소중한 것, 다른 건 다 버려도 죽어서도 그것 하나만큼은 챙겨서 다행이다 싶을 바로 그게 없다면 문제입니다. 늘 그럴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안겨주지 않던 것들에 대해 왜 아직도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체면이 밥 먹여 주냐?” 하면서도 그것에 매이고, “하느님 믿으면서...”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뭣 하러 아등바등 그래?”하면서도 말만 그랬지 세상 것에 관해서는 늘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집착하고 인색하고 더 욕심 부리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갈 ‘땅의 사람’이지만 또한 하느님의 숨결을 받아 숨 쉬고 하느님 모상을 지닌 존재이기에 세상 것으로는 결코 그 속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살아가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빵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고, 쾌락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세상 것만으로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빵도 옷도 집도

사람도 다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살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그 물을 주시려 오늘도 말을 걸어 오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하시며 흔히 모이는 우물터로 다가와 먼저 말을 붙이십니다. 사순절은 야곱의 우물가에 제각기 향

아리를 이고 모이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만남의 시간입니다. 살았던 인생 이야기며 부끄러워 보이기 싫었던 이런저런 것들을 돌아보고 내보이면서 다시 용기도 열고 자유로움과 힐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그 시간의 끝에는 우리도 빈 항아리 내려놓고 달려가 온 동네사람들 앞에서 내가 겪은 그 만남에 대해 속 시원히 한번 크게 떠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궤**

• 전례주년 해설 •

기도, 보속, 자선의 사순시기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 전까지를 사순시기, 혹은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사순(四旬)이란 40일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기간에서 주일을 빼면 40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속죄와 정화의 기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40일간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며, 모세는 십계명 판을 받기 전 40일간 재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교우들은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사순절 동안 자신과 이웃의 회개를 위해 기도와 보속과 자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전례색은 속죄와 보속을 상징하는 자색입니다. 사순 미사의 독서는 회개를 강조하고 구세주의 수난을 드러내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사전례 중에 대영광송을 노래하지 않으며, 알렐루야도 노래하지 않습니다. 교우들은 사순시기의 시작인 재

의 수요일과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인 주님 수난 성 금요일에 금식의 재계를 지킴으로써 주님의 수난을 기억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습니다. 재의 수요일과 일 년 중 모든 금요일에 지키는 금육도 같은 보속과 자선의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식과 금육은 속죄하는 사람으로서 교우가 주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희생이므로, 수난하신 주님과 함께 보속하겠다는 생각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절제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주일의 미사 전례와 더불어 교우들이 사순시기에 반드시 참례해야 하는 전례는 판공성사입니다. 이에 더하여 되도록 참례하기를 권장하는 전례는 재의 수요일에 재를 머리에 받는 재의 예식, 그리고 성지주일로부터 시작되어 부활성야까지 이어지는 성주간 전례입니다. 성주간 전례는 구원 역사의 절정인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가장 뚜렷이 기념하는 전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아주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성주간에는 다른 약속이나 일을 만들지 말고 전례에 참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궤**

생명보험

김덕우 안토니오 신부 | 청년국 차장

저는 군에서 제대한 후 병원 응급실에서 석 달 가량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떠나시시는 분들과 어렵사리 급한 치료로 호전되어 가시는 분들을 지켜보며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특별하고 중요한 인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병원에서는 환자 보호자라고 하고 일상에서는 가족 또는 친구라고 부릅니다. 병원에서 이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아픈이를 치유하는 이가 전적으로 의료인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병을 치유하는 보다 근원적인 이는 아픈이를 의사에게 데려가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곁을 지키는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분을 통해 당신 곁에 내려오는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 하시며 병자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루카 5,17-26) 결국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온전히 일으키셨지만 그를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온 이들의 사랑과 의지가 없었다면 병자가 어떻게 일어났겠나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지분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곁으로 보내고자했던 그들의 믿

음이 과연 생명을 살려내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대 많은 가정에 파고드는 생명 보험의 열풍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할까 걱정하기보다 하느님의 의로움을 찾을 때 다른 모든것을 아버지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예수님 말씀(마태 6,31-34)을 생각한다면 생명보험 증서가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 놓는 가족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공간에 쌓아둔 재물에 있지 않다는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김덕우**



햇볕 한 줌

도루묵



조선 14대 왕이었던 선조 때의 일입니다. 당시 선조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음식이 변변치 못해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맛이 기막힌 생선요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조는 신하들에게 그 생선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조는 그 맛에 비해서 물고기의 이름이 형편없어 그 자리에서 ‘은어’라는 멋진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왜구가 물러난 뒤 선조는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피난길에 맛있게 먹었던 생선이 생각나서 신하에게 은어를 반찬으로 올리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미 그의 입맛은 진수성찬으로 인해서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도로 묵”이라고 부르도록 명했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와서는 ‘도루묵’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 나가다가 중도에 일을 그르쳐 원상태가 되었을 때 ‘도루묵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사순절이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모두들 다짐했던 결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은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금주의 성인

3월 23일	성 도미시오(순교자, 361년), 성 빅토리아노(순교자, 484년) 성 투리비오(대주교, 리마, 1538~1606년), 성녀 펠라지아(순교자, 5세기) 성 프루멘시오(상인, 순교자, 484년)
3월 24일	성녀 가타리나(과부, 수녀, 스웨덴, 1331~1381년), 성 라티노(주교, 브레시아, 115년) 성 세쿰도(순교자), 성 알데마르(수도원장, 108년경), 성녀 힐렐리타(수녀원장, 바깥, 717년경)
3월 25일	성 디스마(십자가 위의 착한도둑, 1세기), 성 루치아 필립피니(동정녀, 설립자, 1672~1732년) 복자 토마시오(은수자, 1337년), 성 하롤도(소년, 순교자, 글로스터, 1168년)
3월 26일	성 루드제로(주교, 위트레흐트, 809년), 성 바실리오(은수자, 952년) 성 카스톨로(순교자, 로마, 286년), 성녀 펠리치타(동정녀, 파도바, 9세기경)
3월 27일	성녀 리디아(순교자, 121년), 성녀 아우구스타(동정 순교자, 트레비소, 5세기) 성 요한(은수자, 이집트, 304~394년)
3월 28일	성 군델린다(수녀원장, 니더민스터, 750년), 성 군트람노(왕, 부르코뉴, 592년경) 성 투털로(수도승, 장크트갈렌, 915년), 성 프리스코(순교자, 260년)
3월 29일	성녀 글래디스(은수자, 뉴포트, 6세기경), 복녀 디에모다(동정녀, 베소브룬, 1130년경) 성 루돌포(주교, 라체부르크, 1250년경), 성 바로키시오(수도승, 순교자, 327년) 성 요나(수도승, 순교자, 327년), 성 파스토르(순교자, 311년)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3월 29일 토요일은 (故) 전달출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님 선종 4주기입니다.

■ 압량성당 대학생 거점본당 첫 미사 봉헌



교구 제2차 시노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청년사목의 다양한 사목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2대리구 대학생 거점본당으로 선정된 압량성당에서 3월 9일(일) 오후 5시 2대리구 주교대리 박성대 요한 신부님의 주례로 대학생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 하춘수 대구은행장 교구장 축복장 수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3월 12일(수) 오후 3시 교구청 본관 3층 응접실에서 대구은행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교구를 위해 많은 공로를 세운 하춘수(베드로) 형제에게 축복장을 수여하셨다.



새주소 사용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발간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을 새롭게 발간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주소록은 도로명 새주소 사용에 맞추어 전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제 인사이동 및 개편 등에 따른 최신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 5,000원 | 620쪽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7~9

이번엔 정말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24일(월) 11:00 도량성당		3월 25일(화) 14:00 신암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24일(월) 11:00 계산성당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미사	3월 26일(수) 10:00 죽도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3월 24일(월) 11:00 수성성당		3월 26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25일(화) 14:00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26일(수) 10:00 평화성당
-	-	바뇌기도회 월례미사	3월 27일(목) 14:00 삼덕성당

성소 | 피정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4.5(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용서의 어머니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2박 3일 무료 피정(작은예수회)

기간: 3.28(금)~30(일)
장소: 가평 작은 예수회 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테레사, (010)2646-0583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9명)

기간: 4.8(화)~9(수)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평창 성필립보 생태마을

여름 에코 피정

기간: 7.21~8.24(각 2박 3일씩)
주제: 지구온난화, 생태체험

대상: 초·중·고 주일학교, 복사단
비용: 1인당 9만 원 (6식)
문의: (033)333-8066

교육 | 모집

바오로딸 영화치료_행복한 영화읽기

일시: 4.7(매주 월) 13:30
장소: 공평동 시내 바오로딸 서원
내용: 힐링무비, 힐링토크, 소통과 공감
회비: 10주 10만 원
문의: 에반젤리나 수녀, (010)2658-5185

말씀의 성모영보 수녀회 Fiat 젊은이 기도 모임

기간: 3.29(토)~30(일)
대상: 34세 미만 미혼 남녀 / 2만 원
문의: (010)8920-9423

예수성심 성삼일 전례 초대

기간: 4.18(금) 20:00~20(일) 10:00
대상: 미혼 20~35세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2649-2045

예수마음배움터 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3.28(금) 17:30~30(일)
4박 5일: 3.31(월) 14:00~4.4(금)
8박 9일: 4.24(목) 14:00~5.2(금)
에니어그램: 4.12(토) 15:30~13(일)
문의: (031)946-2337~8

살레시오 수녀회 여름 신앙학교

장소: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대상: 초 3학년~6학년
문의: (062)373-0942 / (010)8621-0940
<http://www.fmayouth.or.kr>

미래사목연구소 제9차 심포지엄

일시: 4.7(월) 13:30~17:50
장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주제: 중국의 사목현실과 한국교회의 교류
대상: 중국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접수: (031)985-2835 / 986-7129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19기 모집

접수기간: 3.31(월)까지
수업: 3.24~7.28 (매주 월)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워크숍 등
수업료: 90만 원, (010)9494-8169

알아 두면 참 편한
계산성당 연도실
- 가톨릭 신자만을 위한 서비스
- 운구에서 발인까지 모든것
(장례절차/행정서류/성당에서 도와드릴)
상담안내 | **256-2046**
24시간 상담가능/도우미·상담사 무료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왕금성당 사이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MRI, CT, 위/대장 내시경
• 건강보험검진, 공무원 **종합검진**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 출구 (울랄라스 내당점 맞은편)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서울 사무실 확대 앞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정승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일본성지순례
나가사키, 이라도 4일 | 뱃부, 오미타 5일
출발일: 4월 24일 | 출발일: 5월 28일
6월 04일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코렐레(유스티노)

행사 | 모임

수성성당 50주년 기념 은혜의 밤
 기간: 4.1(화)~3(목) 19:00~22:30
 장소: 수성성당
 주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주관: 대구 성령쇄신봉사회

대구평화방송 기획 초대전 '율리아 박혜영 십자가 도예작품전'
 기간: 3.26(수)~4.1(화)
 초대일시: 3.26(수) 18:00
 장소: 매일빌딩 1층 CU갤러리
 문의: (054)972-8518 / (010)8711-7255

교육 | 모집

영남지역 CPE 세미나 개최
 일시: 3.30(일) 9:30~16:30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남산동)
 주제: 대상관계이론에 의한 가족치유와 영적돌봄
 문의: CPE센터, (010)4143-5508

가톨릭문인회 부설 문예창작교실 개강
 개강: 4.2(수)
 장소: 가톨릭여성교육관
 과정: 기초창작반, 여행작가반
 문의: 254-6115

신학 · 성경 강좌 수강생 모집

성사론, 축일과 신자생활, 윤리신학, 요한묵시록, 성화와 함께하는 성경이야기, 동양철학, 대구의 신앙·역사·문화, 미사전례와 신자생활, 신약·구약 성경과정, 구약성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

관덕정 주관 4월 성지순례
 일자: 4.27(일) / 3만 원(중식 포함)
 신청: 3.26(수)부터 선착순
 장소: 광주대교구 순교자 기념성당
 문의: 관덕정, 254-0151

새빛학교 기초 영어, 한문반 모집
 영어교실: 매주 화, 목 13:00(주 2회)
 한문교실: 매주 화 15:00(주 1회)
 문의: 교무실, 476-3100(교대역)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과목: 심리상담, 가곡교실, 발성법, 키보드 반주법
 장소: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문의: (070)4266-0047

성바로로 서원 소개
 성바로로 수도회 수사들이 운영하며 도서, 음반, 성물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사도직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많은 애용,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256-4592 (성모당 부근)

채용 |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부활위문품 신청
 군중후원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군 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3.25(화), 접수: 본당사무실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 (의경, 전경포함)
 ※ 훈련병(교육병포함), 부사관, 장교제외

교구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오창덕(요한)
 문의: 253-9550

2014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추가 일자: 8월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2014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5천 원, 620쪽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삼성화학건설
옥상 우레탄 방수
 주택수리 · 리모델링 · 칠
 청구 053)627-7204
 주택 010-6347-0778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 를 열어갑니다
 2014. 5. 15 개교100주년 기념식

전화영어 / 전화중국어
 (www.encphone.com)
 영어 : 기초 · 중 · 고급회화 영자신문(코리아타임 · 아이비뉴스) 토익스피킹 / 수능듣기 탁월한 효과
 중국어 : 기초 · 중 · 고급회화 프리토킹 / 비즈니스 / 각종시험대비
 (02)784-3305 | 011-9871-0582
 이 스페어나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해아림한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아노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예약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송원학원옆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원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정)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행복한 재할 · 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영, 월레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형(요세페나)
 이 범 수(대견안드레아)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